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1권 제2호(2000)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1, No. 2. 2000

주요개념 : 절주행위 의도, 태도, 사회규범적인식,
조정능력인식, 계획된 행위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일부 대학생의 절주행위 의도와 관련요인 조사 연구 : 계획된 행위이론의 적용

유 혜 라*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위가 심각한 문제행위 수준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일 조사에 의하면 학생의 일주일 평균 음주 횟수는 2 - 3회이며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2차를 가고 남학생의 경우 10명 중 4명 정도는 폭음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 학생을 포함하여 전체 93%의 학생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학생들은 과음과 폭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학습능력의 저하, 경제적 손실,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한 건강의 위협, 사고와 폭력, 인간관계의 저하, 혹은 사망에 이르는 극단적인 사건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의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인식으로 술을 절제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잘 마시며 취할 때 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행위를 나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술을 마셔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이 조직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서문희, 1997). 그러므로 학생들은 음주를 대학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술을 마실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학생들의 절주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 중재 방법을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음주는 이미 대학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술문화를 배우기 시작하는 대학시절에 올바른 음주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의 음주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혜미, 1999).

절주행위는 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주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정의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김광기, 1999), 절주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이나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윤혜미, 1999). 알코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그 대상이 청소년 혹은 알코올 중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연구주제 역시 음주행위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절주행위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문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절주행위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중재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일차 단계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절주행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zjen, 1980)을 이론적 근거로 사용하여 절주행위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인식, 그리고 절주 의사를 조사하며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절주 의도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전임강사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절주에 관한 태도를 조사한다.
2) 대학생의 절주에 관한 사회규범적 인식을 조사한다.
3) 대학생이 인식하는 절주행위 조정능력을 (Perceived Control ability) 조사한다.
4) 대학생의 절주의도를 조사한다.
5) 대학생의 절주의도 예측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절주 (絶酒) : 술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알코올 량을 마시는 것으로 맥주 250cc 이하, 위스키 30cc이하, 와인 100cc이하를 의미한다(mydoctor.snu.ac.kr/hinfo/198.asp).

Ⅱ. 문헌 고찰

1. 절주 개념

절주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건강행위의 하나로 범국민 교육을 통하여 적극 권장할 것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1996). 그러나 절주는 아직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김광기, 1999) 문헌을 조사한 결과 절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보고서나 혹은 조사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절주와 관련된 문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상 절주를 과음, 폭음과 같이 문제음주 형태와 반대되는 건강행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주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절주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넘지 않은 량" 혹은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량"을 의미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함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주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이 '적정수준의 알코올 섭취량'인데 이 적정수준이 그러나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민건강지침 (1993)에 의하면 적정수준이란 소주 100cc(2컵), 맥주 600cc (3컵), 와인 240cc (2컵) 양주 60cc (2컵)를 말하며 이는 알코올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30cc 정도이다. 반면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시한 적정 수준은 맥주 250cc이하 (1컵), 위스키 30cc이하 (1컵), 와인 100cc이하 (1컵)로 (http://mydoctor.snu.ac.kr/hinfo/198.asp) 이는 국민건강지침 기준에 비해 약 1/2배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두 기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절주 관련 문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성인의 간에서 한시간 동안에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이 약 10그램 (1단위)로 소주 1병은 약 8단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보통 사람이 소주 1병을 마시는 경우 약 8시간에 걸쳐 분해 작용이 일어나 체내 알코올의 분해가 진행되는 동안 체내에는 계속해서 술기운이 남아 있게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15단위, 여성의 경우 10단위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http://rich.chonnam.ac.kr/~health/alco/alco12.htm).

이와 같이 절주를 규정하기 위한 자료들이 다소 있기는 하였으나 그 규정 사이에 차이가 심하고 또한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절주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절주사업

우리나라에서 절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6년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의료 서어비스의 주요 관심대상이 질병의 치료 및 회복에서 예방과 건강의 증진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에게 금연, 절주에 관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이 법으로 제정되었고 각 지역의 보건소, 학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절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절주를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1) 각종 매체를 이용한 절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2)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3) 술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실시하며 4) 민간운동차원의 절주 노력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5)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저성된 기금으로 절주교육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박용주, 1999).

그러나 일 보고서에 의하면 보건소와 학교 및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절주사업은 그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변종화, 1998), 그 이유는

① 절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절주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② 절주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원, 기술적인 자원 및 행정적인 지원이 미미한 상태이고

③ 절주사업을 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법에 규정된 사업을 중앙정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④ 절주를 위한 고유한 사업이 계획되기 보다는 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연, 운동, 영양 및 식생활등의 여러 영역의 한 구성프로그램으로 추진되므로서 부수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김광기, 1999).

3) 대학생의 절주사업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절주사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이미 19세가 넘은 성인으로서 법적인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음주를 제약할 수 없으며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인구집단으며 발달적으로 볼 때 동료집단의 규법에 순응하려는 특성이 강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신조를 쉽게 바꾸지 않는 집단이므로 이와 같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절주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절주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며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역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일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생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1) 음주에 관한 대학생 개인의 인식증대 2) 태도 개선 3) 행동변화를 위한 전략 4) 학생들의 음주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생들 자신의 의식변화 및 주위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혜미, 1999).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및 개인 수준의 금주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 일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음주는 주위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음주를 유도하는 사회영향을 인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기술과 규범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고 있다 (최은진, 1999).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의 결과, 학생의 음주와 관련된 중재방안은 이론개발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에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남녀 대학생 225명이었다.

2. 자료 수집

자료수집 시기는 2000년 5월 - 6월말까지 약 6주간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각 대학교의 일 교양강좌를 편의추출하여 각 담당교수에게 허락을 받은 뒤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무기명 처리와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작성하게 한 뒤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총 261부가 회수 되었으나 자료의 신빈성이 낮은 36부를 제외하고 225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Azjen이 제시한 도구 개발 방법에 준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4개의 개념 (절주의도, 절주 태도, 사회규범인식, 조정능력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 = .887, .946, .681, .763 이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통계법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으며, 절주의도 점수가 높은 군과 낮은 군사이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주요 변수 점수 차이를 보기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 (ANOVA)를 실시하였다. 절주의도 점수와 일반적 특성, 연구 주요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고 의도 점수의 예측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74명 (77%), 여학생이 51명 (23%)이며,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2.1세였다. 학생들은 대학생활 기간은 차이가 심하여 짧게는 1년 미만부터 길게는 10년이 넘은 학생도 있고 평균 대학생활 기간은 2.83년 이었다. 학생들은 11개 종류의 전공 분야를 갖고 있었고 이중 상경대학 학생 81명 (36.0%), 공과대학 학생 41명 (18.1%)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척과 같이 어른들과 함께 사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N=164, 72%) 친구나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는 학생 18명, 혼자 사는 학생이 43명 이었다.

학생들의 음주 습관을 조사한 결과, 한달 평균 술값은 6.56만원이며, 한달 30일 중 술을 마시는 날의 수는 평균 5일이고 한달에 한번도 술을 마시지 않는 학생이 있는 반면 많은날은 한달에 약 22 일정도 술을 마셨다고 대답한 학생도 있었다. 주량은 거의 마시지 않거나 소주 반병, 맥주 1병 정도의 적정 음주량을 마시는 학생이 47명 (20.9%) 밖에 되지 않은 반면 소주 1-2병이나 맥주 2-3병 정도를 마시는 학생이 92명 (40.9%), 소주 3-4병 혹은 맥주 4-5병 정도를 마시는 학생은 58명 (25.8%), 소주 5병 이상, 맥주 6병 이상 혹은 양주 1병 이상을 마시는 학생들도 11명 (4.9%)이나 조사되었다.

술을 마신 뒤 건강에 이상을 느낀적이 있다고 학생이 70%정도이며 지난 1년간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도 약 40% 정도 있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결과는 학생 중 약 11%정도가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하루종일 계속해서 들거나, 하루 종일 술을 마신적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술을 마실 수 없을 까봐 걱정을 하였다는 등 초기 알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조사결과로 이들 학생의 경우 음주형태가 문제행위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절주행위 의도, 태도, 사회규범적 인식, 조정능력 인식

1) 절주행위 의도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절주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에게 다음 1달 간 절주를 할 의도가 있는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학생의 44%가 절주의사를 밝힌 반면 42.7%의 학생들은 절주를 할 의사가 없으며 13.3%의 학생은 절주를 할 것인지 않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그러므로 절주를 하지 않겠다는 학생과 절주를 할지 않할지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포함한다면 연구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56%) 절주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절주행위 의도, 태도, 사회규범적 인식, 조정능력 인식

변 수	긍 정	부 정	중 립
절주 의도	99(44.0%)	96(42.7%)	30(13.3%)
사회규범적 인식	86(38.2%)	53(23.6%)	86(38.2%)
태도	181(80.4%)	19(8.4%)	25(11.1%)
조정능력	152(67.9%)	55(24.6%)	17(7.6%)

2) 절주행위 태도

절주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의 80%는 절주는 좋은 일이며, 보탬이 되는 일이며, 절주를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절주행위는 손해 보는 짓 혹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도 소수 (8.4%) 있었고, 11%의 학생은 절주가 좋은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20%의 학생은 절주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규범적 인식

많은 학생들이 절주행위를 사회규범적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 중에 약 40% 정도만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절주 행위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절주 행위가 사회적으로 적극 권장받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대상자의 약 20%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절주행위를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나머지 40%의 학생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절주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결과적으로 60%의 학생은 절주행위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조정능력 인식

조사 대상 중에는 절주행위가 수행하기 쉬운 과제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쉬운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로

〈표 2〉 절주행위 태도신념

변 수	결과평가		도출가능성		결과평가 X 도출가능성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돈을 절약할 수 있다.	1.80	1.01	1.03	1.56	2.46	3.64
건강을 지킬 수 있다.	2.18	.90	1.18	1.12	4.25	3.15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71	1.17	1.18	1.34	2.57	3.58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다.	1.63	1.07	1.02	1.34	2.18	3.36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	1.63	1.13	.92	1.46	2.04	3.60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64	1.52	-.20	1.46	.76	3.05
인간관계가 나빠진다.	-1.34	1.20	0	1.25	-.29	2.88
분위기를 망친다	-1.36	1.20	-.18	1.53	-.74	3.04

이분화되어 있었다. 대상자의 약 2/3은 절주행위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쉬운 행위로 생각하는 반면 1/3 (32.2%) 이상 학생들은 절주행위가 수행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답하였다.

3. 절주행위 태도신념, 사회규범적 신념,

1) 태도신념

학생들은 절주행위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학생들은 절주행위를 하므로서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M=2.46, SD=3.64), 건강을 지킬 수 있고 (M=4.25, SD=3.15),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M=2.57, SD=3.58),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M=2.18, SD=3.36),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M=2.04, SD=3.60). 그러나 반대로 학생들은 자신이 절주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빠지거나 (M=-.29, SD=2.88) 술자석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으로 (M=-.74, SD=3.04) 인식하는 것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회규범적 신념

학생들의 주위사람들 중에는 부모나 (M=8.76, SD=5.61) 형제(M=3.13, SD=4.93), 애인 (M=4.40, SD=7.55), 선생님과 (M=3.62, SD=5.07) 같이 학생의 절주행위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선배 (M=-3.09, SD=4.01), 친구(M=-3.25, SD=4.01), 과친구(M=-2.54, SD=4.15), 후배(M=-2.54, SD=4.15)와 같이 학생의 절주행위를 찬성하지 않는 집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절주의도 예측요인 조사

학생들의 절주 의도를 예측하는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회기 분석을 사용한 결과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하였던 계획된 행위이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절주행위의 경우 절주에 관한 태도변수 (β=.44, P<.001)와 조정능력 변수가 (β=.14, P<.001) 절주의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조사되었다. 태도와 조정능력은 전체 절주 의도의 36%를 설명하였으며 이중 절주에 대

〈표 3〉 사회규범적 신념

변 수	순 응		찬성정도		순응 X 찬성정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부모님	4.80	1.06	1.78	1.12	8.76	5.61
형제	4.40	1.17	.66	1.08	3.13	4.93
애인	4.81	1.17	.85	1.45	4.40	7.55
교수	4.52	1.18	.70	1.14	3.62	5.07
선배	4.24	1.05	-.74	1.12	-3.09	4.93
후배	4.04	1.05	-.67	1.00	-3.25	4.01
친구	4.75	.87	-.28	1.13	-2.54	4.15
과친구	4.42	.94	-.75	1.01	-2.54	4.15

〈표 4〉 대학생의 절주 행위 의도 예측 변인들의 Stepwise 다중 회귀분석 결과

	변 수	B	SE B	Beta
Step 1	태 도	.48	.04	.59**
Step 2	태 도	.43	.05	.44**
	조정능력	.10	.04	.14**
	R^2 = .34 for Step 1; R^2 = .36 for Step 2 (P 〈 .001).			
태도신념				
Step 1	규칙적 생활	-.88	.34	.31**
	R^2 = .098 for Step 1			
규범신념				
Step 1	형제	.17	.05	.28*
Step 2	형제	.15	.05	.25*
	친구	.13	.05	.24*
	R^2 = .08 for Step 1; R^2 = .14 for Step 2 (P 〈 .001).			
조정능력				
Step 1	술생각 조절	1.51	.17	.51**
Step 2	술생각 조절	1.27	.17	.43**
	분위기 조절	.77	.20	.23**
	R^2 = .26 for Step 1; R^2 = .30 for Step 2 (P 〈 .001).			
일반적 사항				
Step 1	술마시는 날자	-.51	.08	-.44**
Step 2	술마시는 날자	-.43	.08	-.38**
	주 량	-.39	.17	-.16*

R^2 = .34 for Step 1; R^2 = .36 for Step 2 (P 〈 .001).
** P 〈 .001, *P 〈 .05

한 태도변수가 조정능력변수에 비해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사회적규범인식은 학생들의 절주의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조사되지 못하였다.

절주에 대한 태도 중 의도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태도신념의 하부 항목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절주를 하므로서 생활이 규칙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인식이 (β =.31, P<.001)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조정능력 중에서는 의도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β =.43, P<.001).

사회적 규범 인식은 비록 학생들의 절주 의도를 예측하는 변수는 아니었으나 주위 사람들 중에 학생들의 절주 의사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 절주 의도군와 비 절주 의도군 사이에 차이를 보인 또래 집단, 애인, 친구, 형제, 후배, 과친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형제 (β =.25, P<.001)와 옛날 친구의 (β =.24, P<.001) 의견이 학생들의 절주 의사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일반적 사항 중에서 절주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한달 평균 술마시는 빈도수와 (β =.-38, P<.001) 학생의 주량 (β =.-16, P<.001)이 전체 절주 의도의 22%를 설명하면서 술을 마시는 빈도가 가장 예측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술마시는 날이 적고 주량이 적은 학생 일수록 절주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절주 의도군와 비의도군의 차이 비교

1) 일반적 특성 비교

절주 의도 점수가 높은 학생과 (절주 의도군)과 절주 의도 점수가 낮은 학생 (절주 비의도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음주습성에서 두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표 5〉. 절주 의도군의 경우 비의도군에 비해 술값의 지출이 적고 (t=4.56, p<.001), 술을 마시는 날이 적으며 (t=5.08, P<.001), 주량이 현저하게 적은 것을(t=3.98, P<.001) 알 수 있었다.

〈표 6〉 절주의도군과 비의도군의 태도, 태도신념 차이 비교

	비의도군		의도군		t
	평 균	S D	평 균	S D	
태도	2.50	5.54	8.44	4.64	-8.10**
태도신념	8.09	14.13	18.01	13.82	-4.92**
건강을 지킬 수 있다.	3.40	3.08	5.22	3.08	-4.11**
돈을 절약할 수 있다.	1.81	3.96	3.07	3.48	-2.35*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56	3.78	3.28	3.26	-3.95**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다	1.25	3.29	3.02	3.19	-3.80**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0.21	3.30	1.10	2.68	-2.04**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	1.22	3.82	2.88	3.50	-3.15**
인간관계를 어렵게 한다.	-0.26	3.04	-0.11	2.76	-0.35
분위기를 망친다	-0.91	3.33	-0.36	2.68	-1.27

*P<.05 ** P<.01

〈표 5〉 절주 의도군과 비의도군의 일반적 특성 차이 비교

	비 의도자		의도자		
	평균	SD	평균	SD	t
나이	22.16	2.23	22.17	2.26	.08
대학 생활 기간	3.00	1.76	2.79	1.95	.82
술값	8.80	5.56	4.08	7.52	4.56**
술마시는 날 수	6.74	5.59	3.67	3.84	5.08**
주량	4.14	2.93	3.05	2.25	3.98**

** P<.001

2) 절주 의도군과 절주 비의도군의 태도와 태도신념 차이 비교

절주 의사가 높은 학생들과 절주 의사가 낮은 학생들의 태도와 태도신념을 비교한 결과 두군 사이에 명확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절주 의도군의 경우 비의도군의 비해 절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t=-8.10, p<.001), 절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 (t=-4.92, P<.001).

3) 의도군과 비의도군의 사회적규범 인식과 규범 신념의 차이 비교

절주 의도군과 비의도군의 절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의도군의 학생들은 비의도군에 비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절주에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4.08, P<.001). 의도군은 비 의도군에 비해 자신의 애인과 형제가 자신의 절주를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친구, 후배, 과친구들고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부모님, 선생님의 경우 의도군, 비의도군 모두에서 자신의 절주에 찬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선배의 경우 의도군, 비의도군 모두에서 자신의 절주에 반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의도군과 비의도군의 조정능력 인식 차이 비교

절주 의도군과 절주 비의도군의 조정능력을 비교한

〈표 7〉 절주의도자와 비의도자의 사회규범적 인식, 규범 신념의 차이 비교

변 수	비의도군		의도군		t
	평균	SD	평균	SD	
규범	0.00	1.22	0.59	1.08	-4.08**
규범신념	1.40	22.54	19.00	23.49	-5.24**
애인은 절주를 찬성한다	1.87	7.62	6.86	7.11	-4.67**
형제는 절주를 찬성한다	2.00	5.11	3.95	4.88	-2.71*
부모님은 절주를 찬성한다.	8.15	5.70	9.65	5.52	-1.86
교수님은 절주를 찬성한다	3.09	5.11	4.10	5.05	-1.37
선배는 절주를 찬성한다	-3.73	4.81	-2.50	5.06	-1.74
친구는 절주를 찬성한다	-2.97	5.97	0.49	4.85	-4.44**
후배는 절주를 찬성한다.	-3.54	4.60	-1.64	3.27	-3.30*
과친구는 절주를 찬성한다	-4.50	4.83	-1.92	4.11	-3.98**

*P<.05 ** P<.01

〈표 8〉 의도군과 비의도군의 조정능력 인식 차이 비교

변 수	비의도군	의도군	t
	평균	평균	
조정능력	1.78	5.59	-4.10**
절주를 방해하는 술자리가 많다	-0.73	-0.25	-2.04*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많다	-0.78	0.59	-6.52**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절주를 할 수 있다.	1.27	1.76	-2.37**
절주는 수행하기 쉬운 행위이다.	0.41	1.11	-3.14*

*P(.05 ** P(.01

결과 절주 의도군이 월등하게 조정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4.01, P(.001). 절주 의도군의 경우 절주 비의도군에 비해 참석해야 하는 술자리가 적었으며 (t=-2.04, P(.001)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t=-6.52, P(.001). 절주 의도군은 또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절주를 할 수 있다고 더욱 강하게 대답하였으며 (t=-2.37, P(.001), 절주 행위 자체는 이행하기 쉬운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t=-3.14, P(.001). 그러나 반대로 절주를 의도하지 않은 군에서는 절주가 이행하기 쉬운 행위가 아니라고 답하였고 술자리가 많으며,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V. 논 의

본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90%는 지난 1달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은 반드시 술을 마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평균 주량은 소주 1병반 정도로 알코올로 환산할 경우 약 50ml 정도이며 이는 적정 음주량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지난 1달간 지출한 술값의 평균은 6만 5천원으로 이는 평균 생활비의 약 20%를 차지하였다.

학생중에 자신이 절주를 해야할 필요성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연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65%) 절주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히 절주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경우 술을 마시는 빈도수, 주량, 술로 인한 비용 지출이 절주를 하겠다고 대답한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좋아하는 학생이 절주를 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과음이나 폭음을 문제행위로 보지 않거나 혹은 과음이나 폭음이 나쁜 행위로 인식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문제이며 자신의 음주 행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윤혜미, 1999), 이와 같은 절주에 대한 의도가 없으면서, 자신의 문제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절주 의도군과 절주 비의도군에서 학생들의 나이, 대학생활기간, 성별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연구 대상자가 나이와 성별이 20대 초반의 남자로 국한되어 있고 차이가 크지 않은 유사집단이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른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나이와 성병의 구성비가 동일한 대상자 집단의 경우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위와는 반대로 기간이 1년에서 10년으로 너무 차이가 많은 집단으로 대상자들의 의견이 너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기간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대상자들이 고르게 분포되었다면 이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절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절주를 하므로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절주 의사결정의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학생들은 시간을 조직적으로 사용하여 학업에 충실하며, 건강을 지키고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곧 절주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 대학생활은 해방감과 자유로 상징된다. 생각과 생활의 자유는 보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방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가야하나 자칫 이를 오용하므로서 대학생활을 방탕과 무질서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이

는 학생들이 많고 또한 이런 생활이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잘못된 사고를 전환시킬수 있는 방법이 필요로 된다.

학생들의 절주의사결정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은 결과적으로 학생 자신의 술에 대한 자제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전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윤혜미, 2000), 일반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술을 마시는 이유로 주위사람들의 권유 혹은 사회적인 유대관계의 유지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주된 요인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 절주행위를 방해하는 요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인 내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음주행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음주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자제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중재방법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부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행위 의도는 행위에 대한 태도, 행위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행위실천에 방해가 되는 요인의 조정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학생들의 절주 의도에 절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절주행위 방해요인 조정능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론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절주의도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절주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절주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중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절주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의견은 학생들의 절주의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주위사람들로부터 상반되는 방향을 제시받고 있기 때문으로 학생들은 주위사람들로부터 절주행위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부모, 형제, 선생님, 애인으로부터는 절주행위를 권유받고 있는 반면 친구, 선배, 후배와 같은 또래 집단에서는 절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유받고 있어 학생들은 이 상반되는 주위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갈등을 격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갈등은 격는 이유는 부모와 형제와 같은 가족의 의견과 선배와 후배와 같은 또래집단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으로, 학생들이 가족만큼 또래집단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Erickson 이 주장하는 초기 성인기의 발달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아 학생들의 절주의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 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의 인식을 동시에 수정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되며, 나아가 또래집단의 상반되는 의견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백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접근도 요구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절주행위 의도와 관련 요인을 조사하였다. 서울과 수원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에 학생 22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계획된 행위이론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0년 5월부터 6월까지 6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기술 통계, 상관관계분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다수의 학생이 적정수준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다수의 학생들은 절주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절주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절주의사에 영향을 주는 태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4.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이 절주의사를 결정하는 조정능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5. 학생들은 가족과 또래집단으로부터 절주행위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 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이 도출되었다.

1. 학생들의 절주행위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은 절주의도군과 절주비의도군을 차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2. 학생들의 절주의도를 증가하기위해서 절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시키고, 스스로 절주할 수 있는 마인드콘트롤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절주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학생의 또래집단을 동시에 중재하는 방법이 적극 권

장된다.

4.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 남자로 국한되어 있어 다른 성격의 연구 대상자를 이용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전지역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광기 (1999). 보건소중심의 실제적인 건강증진 사업 (절주문화와 건강증진사업).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5(1), 21-28.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1996). www.medlaw.or.kr/laws/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htm.

국민건강지침 (1984). rich.chonnam.ac.kr/~health/alco/alco12.htm.

박용주 (1999). 우리나라 음주문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 24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 절주사업의 실제 보고서. 3 - 8.

변종화 (1998).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98-04.

서문희 (1997). 음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추계. my.netian.com/~corona55/repor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혜미 (1999). 대학생의 절주사업의 실제. 제 24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 절주사업의 실제 보고서. 18 - 32.

최은진 (1999). 청소년 금주 프로그램의 실제. 제 24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 절주사업의 실제 보고서. 9 - 17.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한 알코올 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 Abstract -

key word : Moderate drinking behavior Intention,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control,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Intention, Attitude, Perceived Control, and Social Pressure for Moderate Drinking Behavior

*Yoo, Hye Ra**

The purs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salient beliefs, perceived self-control and intentions for moderate drinking behavior of their own. Two hundred and twenty five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in Seoul and Suw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Questionnaires developed by this investigator under the guidance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ere used to collect dat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showed positive attitidues toward the moderate drinking behavior. Students perceived conflict messages, however, from their significant others about their moderate drinking behavior. While par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as sisters and brothers strongly supported the moderate drinking behavior of students, friends and school-mates did not.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did not intend to reduce their alcohol consumption in the near future. Students' attitudes and perceived self-control were the predictor variables of the intention while subjective norms were not. Students who intended to reduce their alcohol

*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RN., DNSc.

consumption showed a more positive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higher perceived self-control scores than who did not. These students who were intent for moderate drinking behavior spent less money for drinking, had less opportunities to drink, and drank small amounts of alcohol Moderate Drinking Behavior programs focusing on students who were heavy drinkers, however, did not intend to reduce their alcohol consumption should be developed focused on their characters. Programs for students who intended to reduce their alcohol consumption also recommended to help the students' positive intention continued.